경영진의 높은 관심과 철저한 방화관리

취재/조 태 엽 〈홍보부〉

고층건물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는 여의도 한복판에서 유난히도 눈을 끄는 시원스러운 건물이 있다.

국회의사당앞 지하차도를 벗어나면 오른편에 우뚝 솟아있는 세련된 외관의 사학연금회관—.

건물 정면의 주차장을 겸한 넓다란 공간은 기능면에서 뿐아니라 균형잡힌 조형미가 뛰어나 고층건물이 항용 지니는 저항감을 크게 상쇄시킨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상21층, 지하3층의 사학연금회관의 방재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불의의 재난에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에 자리잡은 사학연금회관은 지난 82년 9월 준공된 연면적 1만2천5백여평의 대형건물로 상주인원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지상21층인 건물전체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1층에 후생관과 식당, 20층에 스카이라운지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드나드는 곳이다.

근래에 모든 신축건물이 고층화 또는 대형화 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기존 고층건물의 방재시설과 운영현황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은 방재라는 시각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재시설과 운영실태

사학연금회관은 경영진의 방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시설과장을 방화관리자로 임명, 방화관리와 방재시설문제를 같은 시각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재시설은 소방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엄수하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각종 소화장비 등을 빈틈없이 기준에 맞게 잘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방재시설들은 세밀한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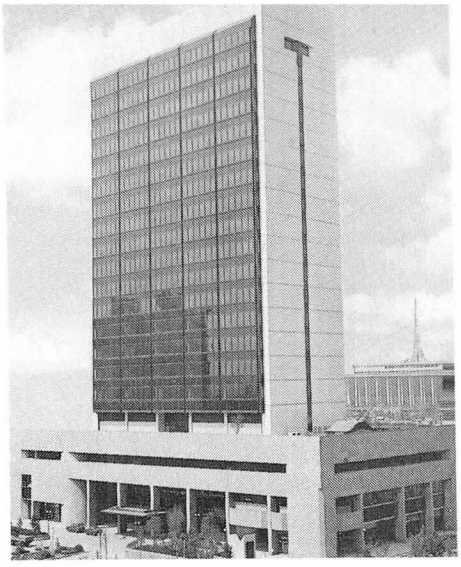
시설은 크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하고 다시 그 기능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분기점검등으로 나누어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부 관련기관의 각종 점검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건물전반에 걸쳐 매년 1회 실시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화재 안전점검을 비롯, 가스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의 정밀점검이 그것이다.

전기분야는 법적인 의무조항이 아니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30일 1차점검을 받고 지적사항을 시정, 8월17일에 있은 2차점검에서 이상없음을 판정받았다.

점검받는 일이라면 이골이 났다는 시설과 담당자의 말이 아니라도 한 건물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사항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점검속에서 시설의 기능과 운영방법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담당자들은 고역과 보람을 함께 털어 놓는다.



■화재경보 및 피난대책

사학연금회관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화재경보시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스누설경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증대에 따라 가스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 별도의 자금을 투입해 감도높은 중앙집중식 경보기를 설치하게 됐다.

이 경보시스템은 어느 지점에서 가스가 누설되면 경보가 가스누설현장, 중앙감시반, 가스담당 기사실에 동시에 울리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초기진화에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여 일단 경보가 울리면 야간에는 숙직자, 경비실 및 기계실등 근무자 10여명이 화재신고 및 초기진화에 투입되고 주간에는 입주사 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용역사 및 시설과의 피난유도활동에 따라 전입주인원의 대피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

■소방교육 및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

소방교육은 매월 민방위훈련시 전입주사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는 소방훈련외에 소방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술직 직원에 대한 분기별교육, 화재발생 취약부분인 음식점등 편의시설 종사자에 대한 년2회의 소화기 사용법 교육등을 들 수 있다.

편의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화기사용법 훈련시에는 건물 뒷편 공터에서 실제로 불을 꺼보는 실기교육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종업원들중 한사람도 빠짐없이 소화기 사용법정도는 몸에 익히고 있다.

■경영진의 관심도

경영진의 방재문제에 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은 간단없이 바뀌곤하는 소방법의 개정에 따라 수시로 관계당국으로부터 전달되는 시설개수 명령등이 언제나 별 무리없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입증이 되지만 그 외에도 다른 건물에서 일어난 사고원인을 검토, 자체시설의 관리상태를 확인토록 하는 실무적인 배려도 담당자에게는 큰 자극제가 되고 있다.

지난 번 전경련회관의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누수방지를 위해 작동불능인 상태로 방치됐던 사실이 드러나자 곧 자체 시설에 대한 점검이 지시되어 에어콤프레셔를 이용하는 공기압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테스트는 스프링클러 시설전체에 공기를 보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압력이 떨어졌는지 여부를 체크, 누수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취약부분을 찾아 완벽히 보완한 뒤 현재는 자동작동 상태로 관리중이다.

방재시설의 운용 및 관리가 본질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예라 하겠다.

대형건물의 소방실무자로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사학연금회관 시설과의 한직원은 소방법에 대한 해석이 기관에 따라 서로 달라 실무처리에 애로를 겪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명백하고 통일된 법규 해석이 있어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보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점검은 외부기관의 점검중 가장 강도높은 내용으로 화재에 관한 한 건물위험 관리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사항의 시정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한 실무자는 말했다.

예를 들어 화보협회측에서 지적사항을 통해 안전도를 고려한 시설이전등을 권유할 때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실제로 사용상 현위치가 편리한 경우 실무자는 애매한 입장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층빌딩은 우후죽순격으로 사방에서 계속 솟아오르고 있다.

이처럼 이롭게 쓰려고 세워진 고층건물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함정이 되어 버리곤하는 이율배반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바로 이것이 고층건물 방재에 있어 최대의 관건이 아닐 수 없다.